

\*아래 대본의 리딩 음성파일을 이메일 첨부해 주십시오.

**<부케티노 Buchettino>** 샤를 페로의 "Little Thumb(엄지동자)" 이야기로부터

스토리텔러(배우) / 노이즈 메이커A / 노이즈 메이커B/ 음향기술자 C:

.....

"살아있는 고기 냄새가 나는데!".**(B: 칼)**

"여보, 산양의 날고기 냄새 아니예요? 그렇죠?".

"이봐, 마누라. 내가 멍청인줄 알아? **(B: 의자 쓰러짐)**

여기서 분명 살아있는 고기 냄새가 난다니까,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되나? 이 망할 여편네 같으니라고! 나한테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."

그 말을 하면서 식탁에서 일어나더니 **(B: 냄비, 뚜껑 등과 같이 테이블이 쓰러짐) (C: 테이블이 쓰러진 후 긴장감 있는 걸음 B) 곧바로 침대 쪽으로 갔어요 (B: 괴물의 걸음)**

**(괴물)"하! 하! (B: 체인, 접시, 뚜껑, 수저가 떨어지는 소음) 자, 내가 뭘 찾아냈는지 보시오! 하! 하! 바로 여기 아이들이 있군! 하! 하! 내 집 안에! 하! 하! 하! 망할 여편네! 이럴 줄 알았어! 날 속이려고 하다니! 이 좋은 것들을 숨겨놓다니, 응? 여기 좀 보라니까, 침대 아래 애들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.... 일곱이나 있군. 바로 먹어 치워야지!".**

**(B: 괴물이 수를 셀 때 체인이 움직이다가 다 세면 떨어진다: 마지막 소리)**

**(아이) "제발! 용서해 주세요! 불쌍히 여겨 주세요! 우린 불쌍한 아이들이랍니다!"**

**(괴물) "바로 그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지!".**

**(아이) "부모님께서 우릴 숲 속에 버리셨어요!"**

**(괴물) "더 잘 되었군, 아무도 너희를 찾으러 오지 않을테니!"**

**(아이) "우릴 그렇게 먹어버릴 순 없어요!"**

**(괴물) "하! 하! 하! 말도 잘하네! 안될 이유가 뭐냐? 안 된다고 누가 그래? 네가? 네 놈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야비한 식인괴물인 걸 모르는가 보구나?"**

**(B: 커다란 냄비 떨어짐, 그리고 괴물 발자국)**

여러분, 괴물은 아이들이 애원하는 소리에 동정을 느끼기는커녕, 쳐다보며 입맛을 다시고 있었어요. 그리고 커다란 칼을 집어 들어서는 **(A: 칼)** 왼손에 들고 있는 기다란 숯돌에 날을 갈기 시작했어요.